

제71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월 25일)

어린이박물관 미륵사지 교육상자

정민영, 하하배움터(어린이박물관 입구 교실) 18:00~18:30

미륵사는 백제 무왕대(재위 600~641)에 지어진 절로, 당시 백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으로 옛 영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이 석탑에서 미륵사 창건 당시 봉안한 사리장엄구(국보)가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뛰어난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미륵사지 석탑과 사리장엄구는 백제의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 주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미륵사지 유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구재와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어 교육상자 안에 담았습니다.

미륵사지 교육상자는 ‘미륵사는 어떤 사찰이었을까?’, ‘미륵사 석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라는 세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교육상자 속 교구재를 활용하여 백제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던 미륵사, 미륵사지 석탑과 사리장엄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 문화재 교육,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교구재 개발 등 어린이박물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미륵사지 교육상자



그림2. 미륵사지 석탑 교구재

특별전<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13)

- 『외규장각 형지안』으로 보는 외규장각의 운영-

김진실,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외규장각外奎章閣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보물창고였습니다. 한양의 궁궐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奎章閣에 비견될 만큼 왕실 구성원의 각종 책보와 어제어필, 왕실에서 펴낸 각종 서적들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각신들이 봉심과 포쇄를 위해 1년에 한번 씩 외규장각으로 왔습니다.

병인양요(1866년, 고종 3) 때 프랑스군의 약탈과 방화로 인하여 외규장각은 건립된 지 8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규장각의 각종 봉안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던 『외규장각 형지안』이 남아 있어 당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각종 책보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의궤들은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지안에는 이 의궤들의 목록이 언제,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래 비치되어 있던 의궤 약 660여 건 중에 약탈당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297건이었습니다. 약탈 직전 외규장각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서	북 좌탁		별1가	별2가	별3가	북 우탁	동	
	2탁	소탁	정간 구역			소탁		2탁
			정간 좌탁 큰 궤櫃	정간 봉안장 (3층)	정간 우탁 궤 3개			
1탁						1탁		
				남, 출입문				

그림1. 1857년(철종 8) 형지안으로 추정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



제71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월 25일)

고려 상형청자의 감상

강경남, 303호 청자실 19:00~19:30

뛰어난 조형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상형청자는 비색청자의 으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형청자란 각종 식물, 동물, 인물 등의 모양을 본떠 만든 청자를 말합니다. 도자기의 종주국에서 온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청자 사자모양 향로>를 가리켜 “산예출향猢猯出香 역시 비색이다. 위에는 사자가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연꽃이 떠받치고 있다.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라고 기록하여 고려 상형청자의 조형미와 아름다운 비색을 극찬했습니다.

고려 상형청자의 소재는 다양합니다. 식물은 죽순과 석류, 조롱박, 참외 등을 즐겨 표현했습니다. 동물은 용과 귀룡龜龍, 어룡魚龍과 같은 상상의 동물을 비롯하여 사자, 원앙과 오리, 원숭이 형태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자 사자모양 향로>(국보, 개성1)은 사자의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긍이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언급한 “산예출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자 향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훌륭한 조형미와 비취빛 비색이 어우러진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국보, 덕수2990)는 음각·양각·투각·철화·상감·첩화 등 청자의 모든 장식 기법을 구사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이 향로의 몸체로 만들어져서 불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향로의 백미는 향로를 등에 지고 있는 토끼 세 마리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토끼의 특징을 담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근에서 발견된 <청자 사람모양 주자>(국보, 신수3325)는 인물의 형상을 정교하게 본떠 만들었습니다. 의복의 생김새와 봉황이 장식된 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받쳐 든 복숭아로 보아 도교의 도사道士나 전설 속 서왕모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왕모는 곤륜산 정상에 있는 궁에 살면서 불로불사不老不死와 신선 세계를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의 우수한 청자 제작 기술과 조형성이 조화를 이뤄 완성된 상형청자는 실용성과 더불어 감상용기라는 미적 성취까지 거둔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1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월 25일)

도제불상

- 흙으로 구워낸 부처님 -

선유이, 301호 불교조각실 19:00~19:30

불교조각실에는 만든 이를 알 수 없는 <도제여래좌상>이 있습니다. 곳곳에 유약이 벗겨지고 불탄 흔적이 있으며 번조燔造 과정에서 터진 곳도 보이지만, 지금은 평온한 모습으로 우리를 마주합니다. 상의 크기와 재질로 보아 중심 전각에 봉안했던 주존 불상은 아니었을 것이나, 상을 조성하고 예배했을 평범한 이들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불상 밑면과 머리 위 나발 등 유약이 없는 부분에 드러난 바탕흙으로 보아 백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백토로 성형한 듯합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옷 주름 선이 예리한 점 등으로 보아 틀에 찍어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손상되었으나 정상계주와 중간계주를 갖춘 머리, 매듭 없이 배를 가로지르는 띠,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옷자락, 불상 바닥을 받친 넓은 판 등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보입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두 손을 밀으로 향한 손갖춤 역시 이 시기 석조불상에 자주 보이는 형식입니다.

도제불상의 제작은 기와나 도자기 제작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양 <본의리 출토 불상대좌>(백제, 7세기)와 같은 삼국시대 도제불상은 기와 가마터에서 번조燔造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상형청자의 한 종류로 작은 청자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인종실록仁祖實錄』(인조12, 1634년 7월 1일 을유乙酉)에 청나라 사신이 요구했다고 기록된 물건 중 ‘번조석불燔造石佛’이 포함되어 있고, 정시한丁時翰(1625~1707)의 『산중일기山中日記』(정묘년丁卯年, 1687년 8월 26일조)에 정시한이 금강산 보덕굴을 방문하여 ‘번자불燔磁佛’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상은 도제불상의 제작 전통이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드문 예입니다.



그림1. 도제여래좌상



그림2. 청양 본의리 출토 불상대좌